광주 교육환경 위험 노출

가스저장소 등 학교주변 위험시설물 16% '전국 최고'

초·고교 원어민 보조교사 한명도 없어

광주지역 초·중·고교 주변의 위험시설 설치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전북 다음으로 낮은 등 광주의 교육여건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16%가 위험에 노출**=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81개 초·중·고교의 16%인 45개교 주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각종 위험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4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이었다. 위험시설물 종류는 가스저장소 5개, 석유저장소 및 주유소 21개, 고압송전탑 2개, 대규모 건축현장 17개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만1천594개교의 4.6%인 535개교 주변에 각종 위험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위험시설물 설치비율은 서울이 14%(1천263개교 중 183개교)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가 10%(1천980개교 중 196개교), 대구가 6%(421개교 중 25개교), 부산이 5%(615개교 중 29개교)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1천35개교 중 3개교만이 위험시설에 노출돼 있으나, 위험시설이 모두 고압 송전탑이어서 화재 등 대형 참사와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어 교육 차별**=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중학교에만 원어민 보조교사 2명이 배치돼 있을 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학교 수 대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비율은 0.75%로, 0.26%에 그친 전북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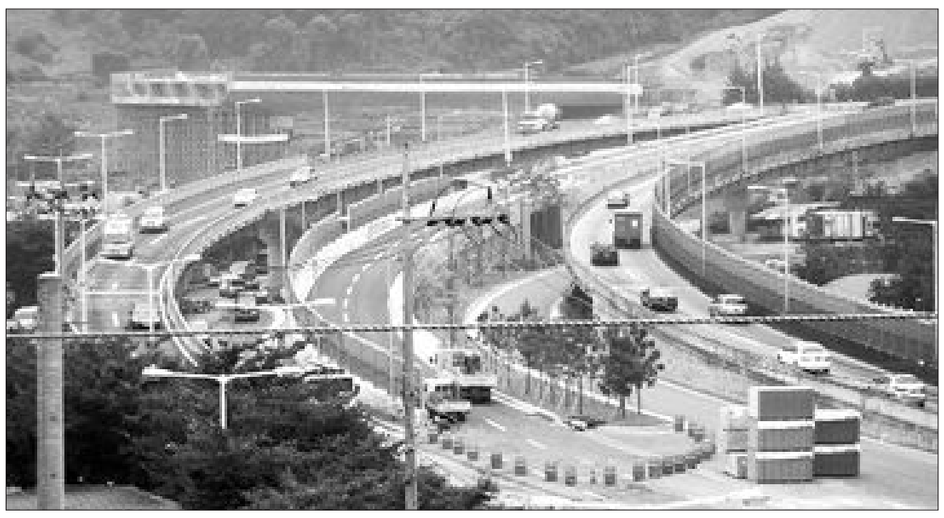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5천647개교에 894명(15.8%), 중학교 2천947개교에 625명(21.2%), 고등학교 2천156개교에 385명(17.9%)이 각각 배치돼 평균 17.7%를 기록했다.

주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보다 외국인과 의사소통능력이나 외국어 학습능력에서 훨씬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시·도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단위:개·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원어민 보조교사수	학교수	원어민 보조교사수	학교수	원어민 보조교사수
서울	564	293(52%)	368	120(32.6%)	308	58(18.8%)
부산	285	16(5.6%)	166	52(31.3%)	139	4(2.9%)
대구	201	4(2.0%)	119	12(10.1%)	87	5(5.7%)
인천	206	73(35.4%)	114	61(53.5%)	105	33(31.4%)
광주	128	0(0%)	76	2(2.6%)	64	0(0%)
대전	124	10(8.1%)	76	11(14.5%)	59	1(1.7%)
울산	105	4(3.8%)	51	10(19.6%)	42	6(14.4%)
경기	1,011	388(38.4%)	474	110(23.2%)	340	206(60.6%)
강원	366	0(0%)	161	27(16.8%)	121	0(0%)
충북	252	8(3.2%)	123	23(18.7%)	81	6(7.4%)
충남	442	15(3.4%)	187	76(40.6%)	113	0(0%)
전북	420	0(0%)	202	0(0%)	133	2(1.5%)
전남	455	68(14.9%)	248	73(29.4%)	151	43(28.5%)
경북	502	5(1.0%)	284	23(8.1%)	205	12(5.9%)
경남	482	2(0.4%)	256	16(6.3%)	177	1(0.6%)
제주	104	8(7.7%)	42	9(21.4%)	31	8(25.8%)
합계	**5,647**	**894(15.8%)**	**2,947**	**625(21.2%)**	**2,156**	**385(17.9%)**



제2순환도로 각화IC 신설 램프교 이용하세요

광주시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제2순환도로 각화 IC 램프교(ramp橋·입체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가운데 두암동에서 동광주 IC 방향으로 가는 램프교〈왼쪽〉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 동광주IC방향 차량은 신설 램프교〈가운데〉를 이용해야 한다.

광주시와 도로공사는 두암동~망월동 구간(7㎞)에 2천20억원을 들여 제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위해 이 램프교를 철거키로 하고 새 램프교로 교체했다. 호남고속도로 연결공사는 오는 2009년 말 완공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저소득층 자녀에 자유수강권 지급

'방과후 학교' 골라서 간다

'바우처 제도' 시범운영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재학 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골라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방과후 학교 바우처(자유수강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광주지역 8개교 등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와 광주시교육청 관내 5천명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바우처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3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바우처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특기 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등이다.

1인당 최대 월 2개 강좌(1개 강좌 3만원 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바우처로 수강이 어려운 고액 강좌의 경우 수강 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학생들에게 바우처(수강권)을 지급해 재학 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 비영리기관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원급 검진기관 79% 진찰료 이중청구

지난해 967곳 적발

지난해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의 79% 가량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천230곳 중 967곳(78.6%)이 이미 건강검진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에 이중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진찰료 총액은 3억4천800만원(4만8천110건)으로 전년도(2004년)의 1억4천만원(847곳, 1만6천939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했다.

연간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건보는 연간 480만원을 넘게 부당청구한 검진기관 8곳(2004년 2곳, 2005년 6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검진기관의 검진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가 전체 검진기관 2천235곳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수준·청결도·편의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1%에 달했다. 검진시설이 미흡한 곳이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9.3%, 검진시설이 불결한 곳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수익 보장 미끼 농수산물 투자 '주의'

최근 장뇌삼과 천마, 철갑상어 등 농·수산물 재배나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는 55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1개 업체는 장뇌삼이나 천마, 생선회, 철갑상어알, 말고기 등의 재배나 판매를 통해 통상 3~6개월에 투자금의 120~160% 지급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지역 농어민 이름을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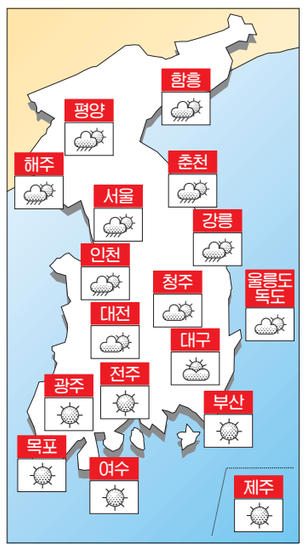
또 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기르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장뇌삼의 경우 7~10년이라는 재배기간이 필요한 만큼,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기 부실화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출근길 안개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조금끼겠으나 한 때 구름이 많겠다.

10월 11일 (음 8월 20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안개	15~25℃
목 포	구름조금, 안개	16~24℃
여 수	구름조금, 안개	18~26℃
완 도	구름조금, 안개	15~26℃
구 례	구름조금, 안개	13~27℃
해 남	구름조금, 안개	11~26℃
장 흥	구름조금, 안개	11~26℃
고 흥	구름조금, 안개	13~26℃
순 천	구름조금, 안개	12~27℃
영 광	구름조금, 안개	14~25℃
진 도	구름조금, 안개	13~26℃
전 주	구름조금, 안개	14~26℃
남 원	구름조금, 안개	11~26℃
정 읍	구름조금, 안개	13~2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4:30 17:21 썰물 09:39 22:22
여 수 밀물 11:46 23:33 썰물 05:05 17:43

▲해뜸 06:35 ▲해짐 18:03 ▲달뜸 20:48 ▲달짐 11: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 씨						
최저/최고	14/25	13/24	13/24	13/25	12/24	13/24

자장면 맛의 비밀은 화학조미료?

한 그릇에 최대 22g 숟가락 두 스푼 분량

100여 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자장면의 유혹,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

MBC 소비자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는 12일 방송에서 서울 시내 중국음식점 10곳을 선정, 자장면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자장면 한 그릇(700g)에 적게는 4g, 많게는 22g의 화학조미료(MSG)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제작진은 "22g은 어른용 숟가락에 수북하게 쌓은 두 스푼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함께 의뢰했던 일반식당의 김치찌개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양이었다"고 전했다.

제작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검사에서 80%가 넘는 응답자는 "MSG가 들어간 자장면이 더 맛있고 자장면 고유의 맛이 난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옛 애인 마주치면… 男 '무덤덤' 女 '반갑게'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옛 애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www.bien.co.kr)는 최근 미혼남녀 730명을 대상으로 '과거 애인과 우연히 마주칠 때 취할 반응'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40.5%는 '안부 정도만 묻는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32.1%는 '반갑게 인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반갑게 인사한다'(26.2%)와 '못 본 척 한다'(14.3%) 등 순으로, 여성은 '안부 정도만 묻는다'(28.6%)와 '못 본 척 한다'(21.4%) 등으로 응답했다.

'교제하다 헤어질 때의 감정상태'는 남녀 모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남 43.2%, 여 41.5%)를 첫 손에 꼽았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